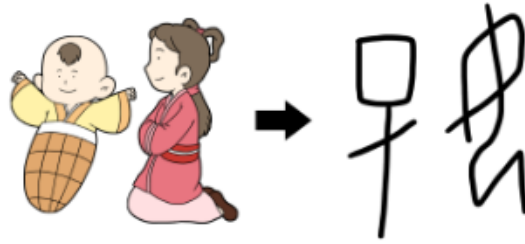


4(2)  
-  
241

회의문자①



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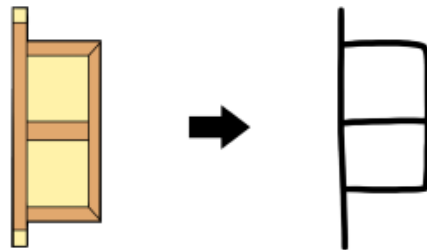
좋을 호:

好자는 '좋다'나 '아름답다',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好자는 女(여자 여)자와 子(아들 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자와 남자가 함께 있으니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好자는 보통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곤 한다. 하지만 好자는 본래 엄마가 아이를 지긋이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왜 母(어미 모)자가 아닌 女(여자 여)자가 엄마를 뜻하는지에 대한 반론 때문이었는지 母(어미 모)자가 들어간 𢶏(좋을 호)자가 만들어져 있기도 하지만 쓰이지는 않는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242

상형문자①



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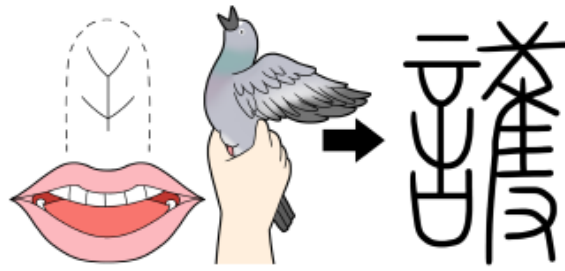
집 호:

戶자는 '지게'나 '출입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戶자는 외닫이 문을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戶자를 보면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외닫이 문이 戶 그려져 있었다. 양 문을 열고 들어가는 대문이 門(문 문)자라면 戶자는 집 안에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던 문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戶자에서 말하는 '지게'라는 것은 짐을 옮기는 도구인 '지게'가 아닌 '외짝 문'을 다르게 부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戶자는 '외짝 문'을 그린 것이지만 부수로 쓰일 때는 '출입구'나 '집' 또는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肩(어깨 견)자처럼 단순히 글자의 모양만 빌려 쓰는 예도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243

회의문자①



護

護자는 '보호하다'나 '돕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護자는 言(말씀 언)자와 護(자 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護자는 풀숲에 있는 새를 손으로 잡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새를 잡는 모습을 그린 護자에 言자를 결합한 護자는 '말로 붙잡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말로 붙잡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을 보살피고 돕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護자는 '보호하다'나 '돕다'와 같이 누군가의 안전을 지킨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도움 호:

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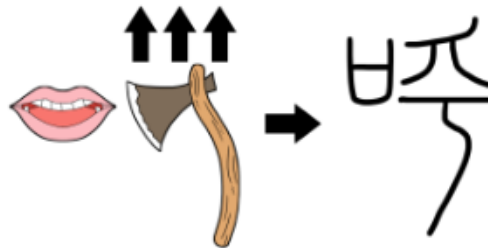
소전

護

해서

4(2)  
-  
244

회의문자①



呼

呼자는 '부르다'나 '(숨을)내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呼자는 口(입 구)자와 呼(어조사 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呼자는 지금은 '어조사'와 관련된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본래는 도끼 찍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다. 呼자는 이렇게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표현한 呼자에 口자를 결합한 것으로 말이 넓게 퍼져나간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부를 호

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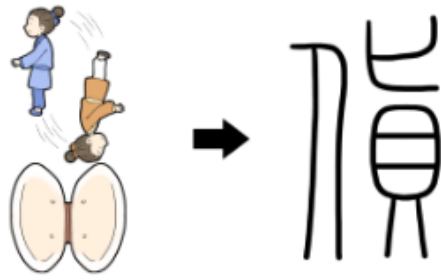
소전

呼

해서

4(2)  
-  
245

회의문자①



貨

재물 화:

貨자는 '재화'이나 '화폐', '상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貨자는 貝(조개 패)자와 化(될 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化자는 똑바로 서 있는 사람과 뒤집혀 있는 사람을 함께 그린 것으로 '변화하다'나 '달라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재화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바꿀 수 있는 돈이나 물건을 말한다. 그러니 貨자는 '변화하다'라는 뜻을 가진 化자에 貝자를 결합해 교역이 가능한 '재화'나 '화폐'를 뜻하게 됐음을 알 수 있다.

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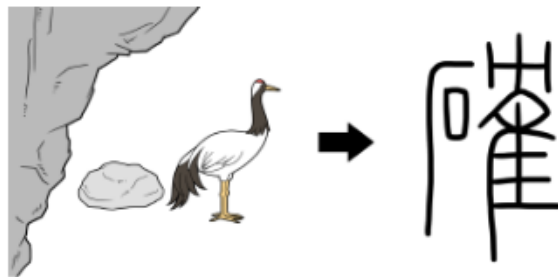
소전

貨

해서

4(2)  
-  
246

회의문자①



確

굳을 확

確자는 '굳다'나 '견고하다', '확고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確자는 石(돌 석)자와 隹(두루미 학)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隹자는 鶴(학 학)자가 생략된 것으로 '두루미'라는 뜻이 있다. 確자는 어떠한 사실에 대한 명확함을 뜻하는 글자이다. 두루미는 평생을 일부 일처제로 살며 지조를 지키는 새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에서 두루미가 영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確자는 이렇게 지조를 지키며 사는 두루미와 강한 돌의 이미지가 결합한 글자로 '견고하다'나 '확고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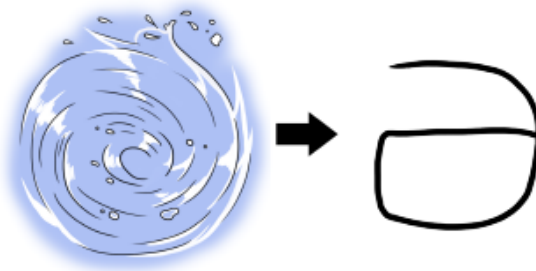
소전

確

해서

4(2)  
-  
247

상형문자 ①



回

돌아올  
회

回자는 '돌다'나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回자는 회오리치는 모습을 그린 상형문자이다. 回자의 갑골문을 보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물이 빨리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回자의 본래 의미는 '돌다'였다. 한참 돌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回자는 후에 '돌아오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回

갑골문

回

금문

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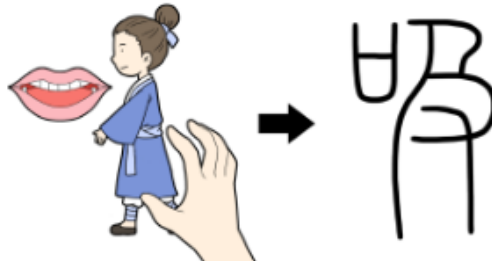
소전

回

해서

4(2)  
-  
248

회의문자 ①



吸

마실 흡

吸자는 '마시다'나 '빨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吸자는 口(입 구)자와 及(미칠 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及자는 떠나는 사람을 뒤에서 붙잡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미치다'나 '다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공기를 몸속까지 다다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吸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모습의 及자에 口자를 결합해 '숨을 들여 마셔서 끌어당김'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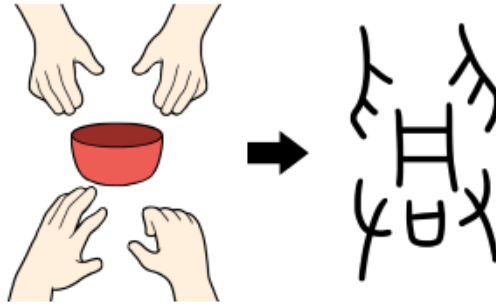
소전

吸

해서

4(2)  
-  
249

회의문자①



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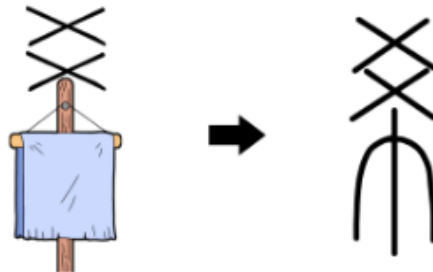
일[盛]  
흥(:)

興자는 '일으키다'나 '창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興자는 𠂔(마주들 여)자와 同(한 가지 동)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𠂔자는 위아래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마주 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興자는 이렇게 무언가를 마주 드는 모습을 그린 𠂔자와 '함께'라는 뜻을 가진 同자를 결합한 것으로 '함께 마주 들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興자의 갑골문을 보면 큰 그릇을 맞잡고 옮기는 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고대에는 나라의 부흥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다. 興자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것으로 '일으키다'나 '창성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250

회의문자①



希

바랄 희

希자는 '바라다'나 '동경하다', '희망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希자는 巾(수건 건)자와 𠂔(효 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한자에서 𠂔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쓰인다. 하나는 '배우다'라는 뜻을 전달하는 경우이다. 學(배울 학)자가 그러하다. 다른 하나는 단순히 모양자로만 쓰이는 경우이다. 希자에서는 𠂔자가 모양자 역할을 하고 있다. 希자에 쓰인 𠂔자는 천(巾)에 새긴 자수(𠂔)를 표현한 것이다. 자수는 바느질로 천에 문양을 새겨 넣는 것을 말한다. 자수가 새겨진 천은 그렇지 않은 천보다 가격이 비쌌다. 그러니 希자에서 말하는 '바라다'나 '동경하다'라는 것은 비싼 천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라는 뜻이다.

소전	해서